



문상화의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㉓

선승의 장례와 장송(葬送)

선승의 죽음을 높여서 '입적' 혹은 '열반'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래 입적(入寂)이나 열반(涅槃)은 '적멸(寂滅)'을 뜻하는 말로서, 번뇌가 소멸돼 마음이 고요·평온해진 상태를 말한다. 즉 탐욕, 증오, 어리석음 등 미혹함이 사라진 상태이다. '원적(圓寂, 완전한 적멸의 세계)'도 같은 말이다.

인간은 육체와 마음, 안이비설 등 감각적 기능을 갖고 있는 한, 육망과 증오, 시기, 질투 등 중생적인 생각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죽는 날까지 항상 그 속에서 살아 가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육체가 사라지면 존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후대에는 입적·열반을 죽음과 동의어로 쓰게 됐다.

선원총림에는 당송시대부터 병승(病僧)을 돌보는 소임과 당우가 있다. 그 당우를 연수당(延壽堂)·열반당(涅槃堂)·무상원(無常院, 無常堂)·중병각(重病閣) 등으로 칭하고, 그 간호 책임자를 연수당주(主)·열반당주(主)라고 한다. 우리나라 선원에서는 '간병(看病)'이라고 하는데, 간병 소임을 맡은 스님은 병승(病僧)이 있으면 먼저 수좌·감원·유나 등 상위 소임자들에게 보고한 다음 요양·치료기관인 연수당(延壽堂, 수명을 연장하는 곳)이나 열반당(涅槃堂, 열반하는 곳)에 입원시킨다. 병승이 일반 환자실인 연수당에 들어오지 3일이 지나도 차도가 없거나 병이 악화되면, 중환자실인 중병각(重病閣)으로 옮겨진다. 이곳 은 말 그대로 중병에 든 스님들이 들어오는 곳으로 회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스님, 곧 입적하게 될 스님이 들어오는 곳이다.

선승이 열반에 든 경우 장송과 다비 등 절차와 격식에도 고승과 일반 승려와는 차이가 있다. 전일 주지(방장)나 현일 주지 또는 고승의 경우는 방장실이나 자신의 거실 등에서 주로 행해진다. 장송법식에 더 많고 장중한데 특히 다른 것은 관청과 인근 타사(他寺), 유력한 신도들에게 부고장을 보내고 상주(喪主)가 있고, 총림 전체가 장례의식에 집중한다. 일반 승려는 모든 것이 연수당이나 중병각에서 이루어지고 법식에 간략하다. 그러나 망승(亡僧)에 대한 문제는 한 선승의 마지막 길이므로 소홀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 규정이 많은 편이다.

장례절차도 두 청구(선원청규, 칙수백장청규) 간에 차이가 있는데, 후대에 편찬된(칙수백장청규)가 더 자세하다. 이것은 후대로 갈수록 더 부가됐음을 뜻한다. 특히 주지(방장)의 장례는 <선원청규>에는 간략한 반면 <칙수백장청규>는 열배도 넘는다. 주지가 권위적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선승이 병이 들어 연수당으로 들어가면

가까운 승려나 도반들은 병승의 침상 앞에 향촉을 밝히고 불상을 모신 다음 경전을 염송(念誦)한다. 그리고 청정법신비로자나 불 등 10호를 외우면서 쾌유를 빈다. "앞드러 원컨대 일심(一心)이 청정하고 사대가 편안하며 수명과 해명을 연장해 육체도 법신처럼 견고하소서"라고 기원한다.

병이 점점 깊어지면 대중들은 다시 그를 위해 아미타불 100번,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 정정대해중보살을 각각 10번 부른다. 그리고는 "앞드러 원컨대 지금 병에 든 비구 ○○는 인연이 아직 다하지 아니했다면 속히 쾌유하게 하여 주사이다. 만일 대명(大命, 죽음)을 벗어나기 어렵다면 속히 안양국(淨土)에 태어나게 하사이다"라고 쾌유를 비는 축원문을 읽고 염불한다. 장로종색이 편찬한 <선원청규> 6권 '망승(亡僧)' 장에는 그 대략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만약 스님의 병세가 점점 더 깊어지면 연수당주(간병)는 수좌·감원·유나·서기·지객과 상의해 병승으로 부터 유언 등을 받아쓰고, 도침과 수계침 그리고 의발 등 도구를 거둬 유나실에 보관한다. 수좌는 의발 등 도구가 보관돼 있는 함(函)에 봉인(封印)하고 자물쇠로 잠근 다음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병세가 위독하면 다시 신고하고, 천화(遷化, 입적)하면 신고한 다음 장송(葬送) 행함을 청한다. (국가로부터 받은) 자의(紫衣, 자색 가사, 즉 僧官服), 도침(度牒), 사호첩(師號牒) 등은 3일 안에 반납해야 한다."

병승을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별도로 죽을 끓이든 음식을 만들어야 하고, 심하면 소대변도 받아내는 등 그야말

병든 스님 간병 쉬운 일 아나

간병 소임은 8복전 중 제일

로 보살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청구에는 간병 소임을 가리켜 '8복전(八福田) 가운데 제일로 삼는다. 하물며 출가한 사람이 질병에 걸리면 누가 돌보리오. 다만 동지들의 자비와 안양에 의지할 뿐이니 진실로 중요한 소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찌 소홀하게 하리오'라며 간병 소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병세가 위독해지면 직병자(直病者, 당직행자, 당반)는 연수 당주에게 고하고, 연수 당주는 수좌와 감원, 유나 등에게 알린 다음 함께 병승 앞에 와서 유언을 받아 적는다. 유언을 구사(口誦)라고 하는데 정해진 양식은 다음과 같다.



열반은 번뇌가 소멸돼 평온해진 상태를 말한다. 사진은 무소유를 강조한 법정 스님의 다비식 모습.

"병을 지닌 승(僧) ○○는 본관은 ○○주(州)이고, 성(姓)은 ○○인데, ○○해(年)에 ○○곳에서 도침을 받고 승려가 됐습니다. ○○년에 ○○사(寺)에 폐탑(佛塔, 입방)했으나, 지금 와서 포병(抱病, 병에 걸림)하니 지수화풍 부정(不定)할까 염려됩니다. 몸에 소유하고 있는 행리(行李, 의발과 도구 등 소지품)를 기록해 주시고 사후 문제는 모두 총림의 청구에 의해 장송(葬送)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병승(抱病僧) ○○는 유언하니다."

요점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행리(行李, 의발과 도구 등 소유물)를 장부에 기록해 달라는 것이고 사후문제는 모두 총림의 청구에 의해 장송(葬送)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유언의 내용으로 보아 사후 개인적인 물건이나 혹은 사유물 처리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던 듯하다. 유언을 받은 다음에는 그 스님이 가지고 있던 물건은 모두 함께 속에 넣고는 봉인(封印)한다. 다만 상하복(上下服, 즉 직褌)과 쾌락(掛絡, 5조 가사)·속옷·염주·행전·신발·수건 등은 시신을 염할 때 필요하므로 남겨 둔다.

일반 승려의 장례는 며칠 장(葬)으로 했는지 나와 있지 않으나 도침은 3일 안에 반납해야 한다. 또 <선원청규>에는 "이 밤에 법사(法事)와 송계(誦戒, 염불, 독경)해 회향한다. 다음날 아침이나 점심 공양 후

바로 진송(津送, 葬送)한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장송은 사후 다음날, 길어도 3일은 넘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병승이 운명하면 연수 당주는 유나와 수좌에게 알리고 행사에게 목욕물을 준비하게 한 다음, 사람을 시켜 감(龕, 棺)과 욕선(浴船, 시신을 물위에 놓고 목욕시키는 배)을 가져오게 한 다음 망자를 깨끗하게 목

위독해지면 청구 따른 장례 유언

다비 때 참가 대중 아미타불 심법

욕을 시키는데 조두(漚豆, 녹두로 만든 비누)를 사용한다. 목욕이 끝나면 삭발을 시키고 속옷과 상하의 그리고 오조가사를 입혀서 가부좌 자세로 통(桶) 안에 앉힌다(눅히는 것이 아님). 그런 다음 다시 감(龕, 棺)에 넣어서 연수당 내에 안치하고 위패를 써서 관 앞의 탁자 위에 놓는다.

위패를 쓰는 방식에 대해 <선원청규>에는 "廢故(물고) ○○上座之靈"이라 쓴다고 하고, 후대에 편찬된 <칙수백장청규>에는 "新圓寂 ○○上座 覺靈"이라 쓴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찰의 위패 쓰는 양식은 <칙수백장청규>의 양식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물(俛)은 평민의 죽음을 뜻하고, 고(故)

는 고인, 신원적(新圓寂)이란 새로 입적했다는 뜻이고, 상좌(上座)는 존칭이고 각영(覺靈)은 영가와 같은 말인데 그냥 영가가 아니라, 깨달은 영가인 것이다. 전일 주지면 "전(前) ○○사 주지 ○○선사지영(禪師之靈)"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직함에 따라 쓴다.

위패를 지키는 행자를 '직영(直靈)행자'라고 하는데, 직영행자는 총림의 공양법에 따라 출상 때까지 아침에는 죽, 점심 때는 밥을 영단에 올린다. 유나와 수좌 등은 하루 3번 차(茶)를 올리고 향을 사른다.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경명일(景命日, 천자 즉위일)에는 출상(出喪)하지 아니한다. 초하루와 보름엔 총림에 정기적인 상당법어 등 행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욕시킬 때 사용한 천은 목욕시킨 사람에게 주고 수건은 삭발시킨 사람에게 준다.

출상(出喪), 다비(荼毘, 화장)하는 날이 되면, 유나스님은 아침 공양이 끝나자 마자 백퇴(白褪, 백추라고도 받음함. 망지의 일종)를 한 번 치고 나서 대중에게 알린다. "대중스님들께서는 죽후(柩後, 선원에는 아침은 죽, 만일 점심공양 후에 다비를 할 경우는 '齊後'라고 함)에 종을 치면 각기 가사를 수하고 망승을 보내는 법사(法事)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약사의 책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제히 나와 주십시오. 삼가 아뢰입니다."

곧이어 종과 북이 울리면 연수당 앞에서 망승(亡僧)을 보내는 장송의식이 거행된다. 대중들이 모두 모이고 주지화상 이하는 모두 차례대로 향을 사루고 합장한다. 이어 유나가 장중한 음성으로 염송(念誦, 독경, 염불)을 마치면 이어 북을 친다. 대중들은 북 소리와 함께 감(龕) 즉 관(棺)을 들어서 다비장으로 이운(移運)한다. 나머지 대중들은 반(幡)과 향로 등을 들고 뒤를 따른다.

운구(運柩)가 다비장에 도착하면 관을 장작더미 위에 얹어 놓고 다시 염불 등 법식을 행한다. 주지 이하 중요 소임자들은 마지막 망승(亡僧)의 왕생정도를 위해 향을 사루고 합장한다. 이어 주지가 햇불을 잡고서 관(棺)이 올려져 있는 장작더미에 밑에다가 점화(點火)를 한다. 점화 후 주지화상은 무상법문을 한다. 대중들은 모두 함께 아미타불을 심법(心念)하면서 다비식을 마친다. 다음 날 아침에 연수 당주와 유나는 다비장으로 가서 유골을 수습하여 물에 뿌리든가 아니면 보통 탑(普同塔)에 안치한다. 보통탑은 대중 모두의 유골을 안치하는 탑이다.



문상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a9@hanmail.net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안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서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동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www.chorokwon.com 박현숙 원장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 0502-337-0108 / 0502-338-0108 www.seonwonsa.kr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무료 수강생 모집

“이는 것이 힘입니다, 기술이 능력이다. 이것이 재력이다”

이 기술은 의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통증관리사 등 건강과 관련한 직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필수 기술이다.

이 기술은 우리 인체의 **외과적인 모든 통증을** 즉석에서 제거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이다. (각종 두통, 목이나 허리 디스크, 척추 전만 후만 측만증, 척추 협착증, 오십견 각종 어깨의 통증, 팔을 들지 못하는 증, 팔의 회전이 어려운증 등 골반이 변위되어 각종 통증이 발생한 경우, 몸이 한편으로 기울는 경우, 정만증, 무릎이나 발목의 변위로 발생하는 각종 통증 등 1000여종이 넘는 수많은 외과적인 질병들이 즉석에서 회복하는 것을 직접 실기해보실 수 있도록 지도하여 드립니다)

- 효과는 마약이나 진통제보다 빠르게 즉석에서 효력을 알 수 있음.
- 부작용은 단 1%로 없음.
- 도구가 필요하지 않음.
- 이 기술은 경력의 이름이나, 근육의 명칭이나, 골격의 명칭이나, 병명을 몰라도 치료되는 기술이라 배우기가 너무나 쉬워 배우면 즉석에서 활용하는 기술임.
- 시술 시에 힘이 들지 않아 하루 수명명도 시술이 가능함.
- 이 기술을 배운 후 취업이나 창업도 지원함.

원심한의원 051)802-0661
원심수기 보존회장 원공 019-305-9138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대념처경 특강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과 대념처경 특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념처경은 위빠사나 수행의 근거가 되는 경전으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전통적으로 바라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전입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수행을 통해 행복을 삶을 바라신다면 지금 이 수행에 동참해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11년 6월 18일 - 6월 24일 [6박 7일]	우포도나 사야도 [통역:일철스님]	20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향토방에 옥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대념처경 특강 및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대념처경 특강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의 면담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 시작 날 - 6월 18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6월 24일 오전 12시
- 참가비(대념처경 특강 및 수행비) : 30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비물 : 수행에 편한 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는 선원에 비치됨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